



2018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2018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8



03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T 02 720 7002 H www.purme.org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푸르메재단



푸르메재단의 새로운 얼굴

우리 사회에 희망의 활씨를 뿌리겠다는 신념으로
10년간 민들레흙씨와 성장했던 푸르메재단이
한 단계 더 높은 꿈을 향해 도약한다는 의지를
새로운 CI에 담았습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푸른 색상에 푸르메의 영문 'P'자를
형상화한 심벌은 어린 새싹이 든든한 나무로 자라
푸른 숲을 이루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장애어린이의 재활을 넘어 장애청년의 자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우직하게 걸어 나갈 푸르메재단을 지켜봐주세요.

2018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8

함께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지원

	05	인사말
2018년 한눈에	08	숫자로 보는 성과
	10	10대 뉴스
	12	결산
2018년 자세히	16	모금 및 배분사업
	20	의료사업
	26	장애어린이 이야기
	27	자립사업
	34	장애청년 이야기
	35	사회통합사업
	39	장애인 가족 이야기
나눔으로 함께	42	강선우 기부자
	43	윤혜준 기부자
	44	이민종 자원봉사자
	45	기적을 만드는 기업
푸르메 포커스	48	전문가 대담
	53	희망의 스마트팜
	57	푸르메재단 소개

지하 사무실에 책상 두 개로 문을 연 푸르메재단이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낯선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목청껏 외쳐도 메아리가 없어 낙담한 때도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한 여름 항구 축제장에 나가 “아름다운 병원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외치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성수 명예이사장님과 함께 바자회에서 콩나물을 팔던 날이 엇그제 같습니다.

푸르메재단이 13개 산하기관 430여 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오로지 기부자님들의 애정 어린 나눔 덕분입니다. 매달 월급의 1% 정도를 나누는 개인 기부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체계적 사업을 재단과 함께 펼치는 기업 기부자, 재능과 힘과 시간을 나누는 자원봉사자가 어찌면 푸르메재단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소외된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올해도 기부자님과 뜻을 모아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길을 묵묵히 걸겠습니다.

지난 15년 아름다운 재활병원 건립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재활치료 이후의 단계를 고민할 때입니다. 장애어린이가 재활치료를 잘 받고 청년이 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해 행복한 일상을 누리야 마땅합니다. 장애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푸르메스마트팜 사업이야말로 푸르메재단에 주어진 소명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푸르메스마트팜의 설계를 완료하고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장애청년들이 푸르메스마트팜의 쾌적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즐거움, 수확한 농작물을 멋들어진 제품으로 가공하는 보람,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푸르메스마트팜을 통해서 ‘장애청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뜻 깊은 본보기를 선보이겠습니다. 나눔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착실하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언과 응원,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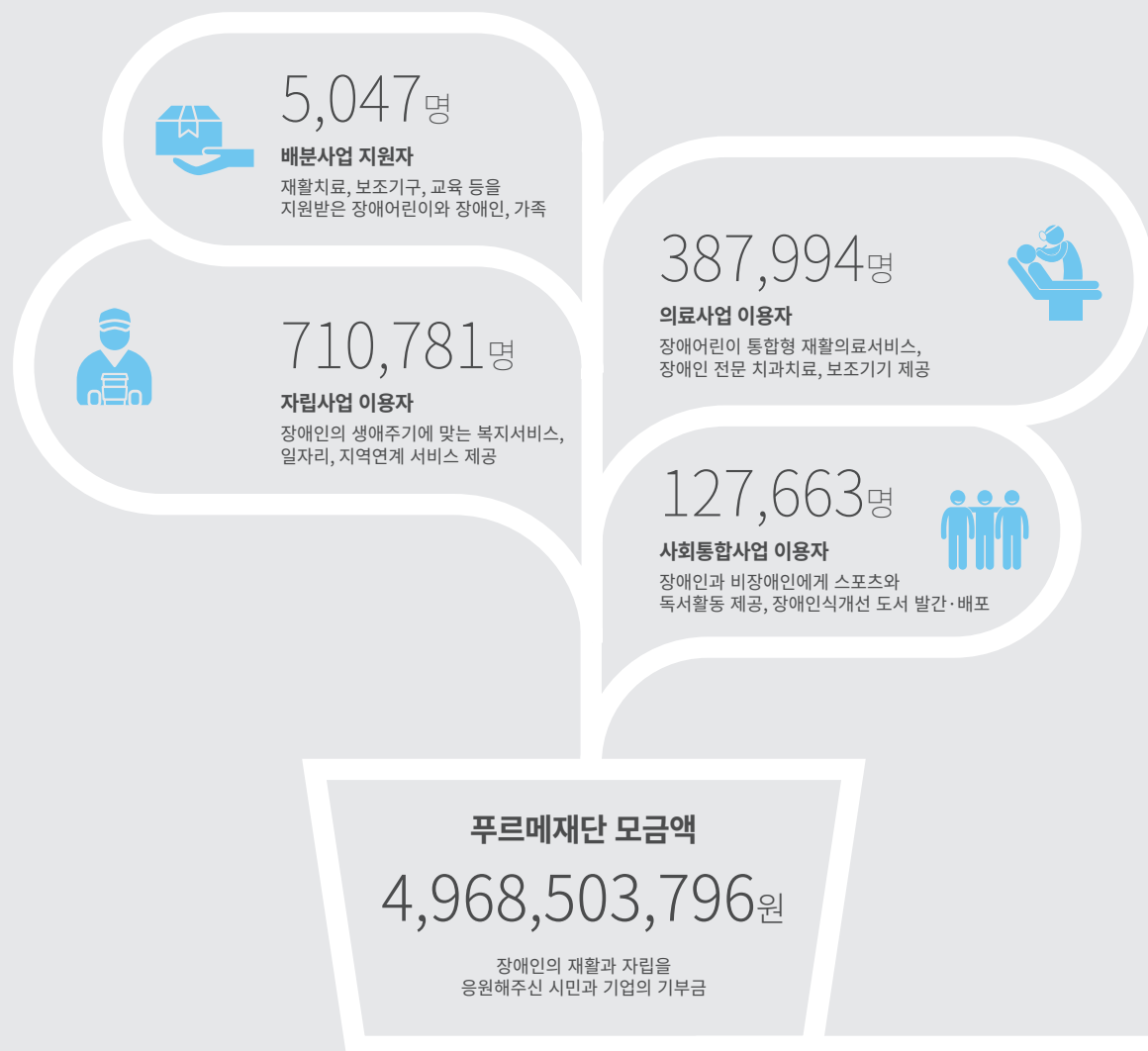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성과 08

10대 뉴스 10

결산 12

숫자로 보는 성과

푸르메재단이 2018년 한 해 동안 일궈낸 변화입니다.



새로운 가족
푸르메재단의 가족이 된 산하기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4개



신규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

82개



운영 프로그램
의료사업, 자립사업, 사회통합사업을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

871개



자원봉사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자원봉사자

6,360명



기부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힘이 되어주신 시민과 기업

12,126명



협력기업·기관
사업과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움을 준 기업과 기관

397개



푸르메 직원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푸르메재단 사무국과 13개 산하기관 직원

424명

10대 뉴스

푸르메재단의 2018년을 아름답게 수놓은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2월 28일



국내 최초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

4월 20일

에이핑크의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응원 프로젝트 해피빈 '굿액션'



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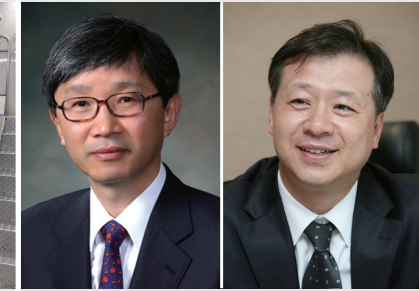
CBS와 함께하는 '꿈꾸는 장애청년, 희망의 스마트팜' 언론 캠페인

10월 24일



故윤병철 하나은행 초대 회장과 딸 혜준 씨의 기부로 어린이재활병원 내 수치료실 완공

11월 29일



신임 공동대표 박태규 교수, 김주영 변호사 선임

2~12월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치과치료 봉사활동 푸르메미소원정대

4월 28일



선 홍보대사와 365명이 함께 달리는 기부 마라톤 '미라클365런'

6월 7~15일



푸르메스마트팜 건립을 위한 네덜란드 선진농업 연수

12월 7일



행복한베이커리&카페 8번째 매장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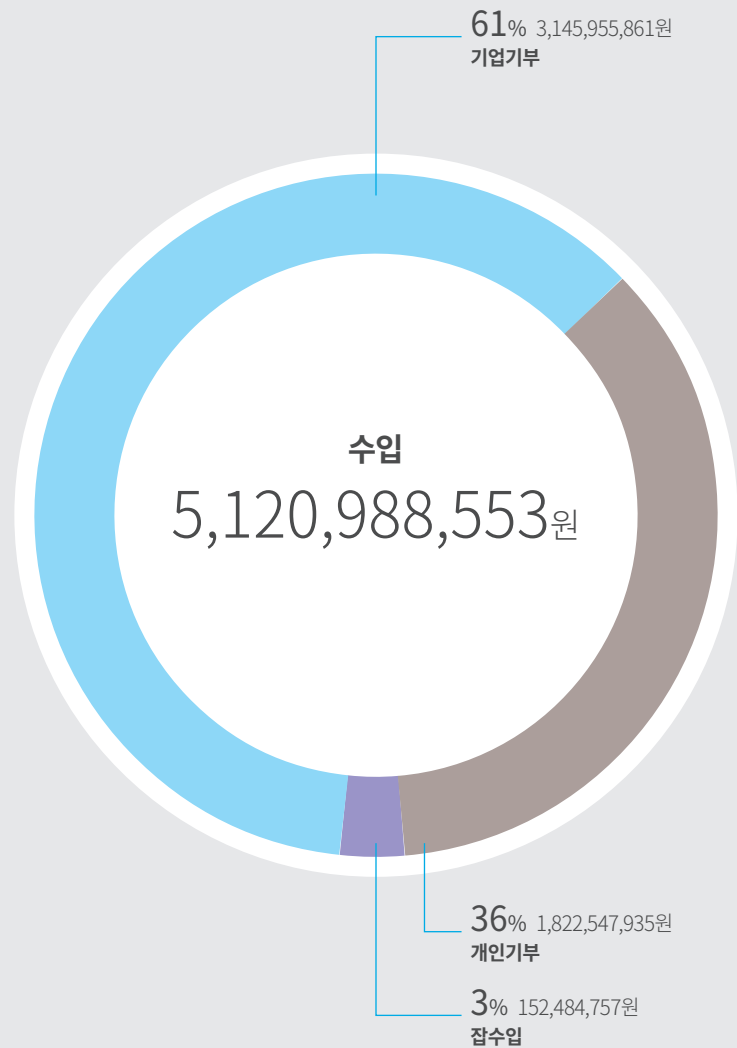
1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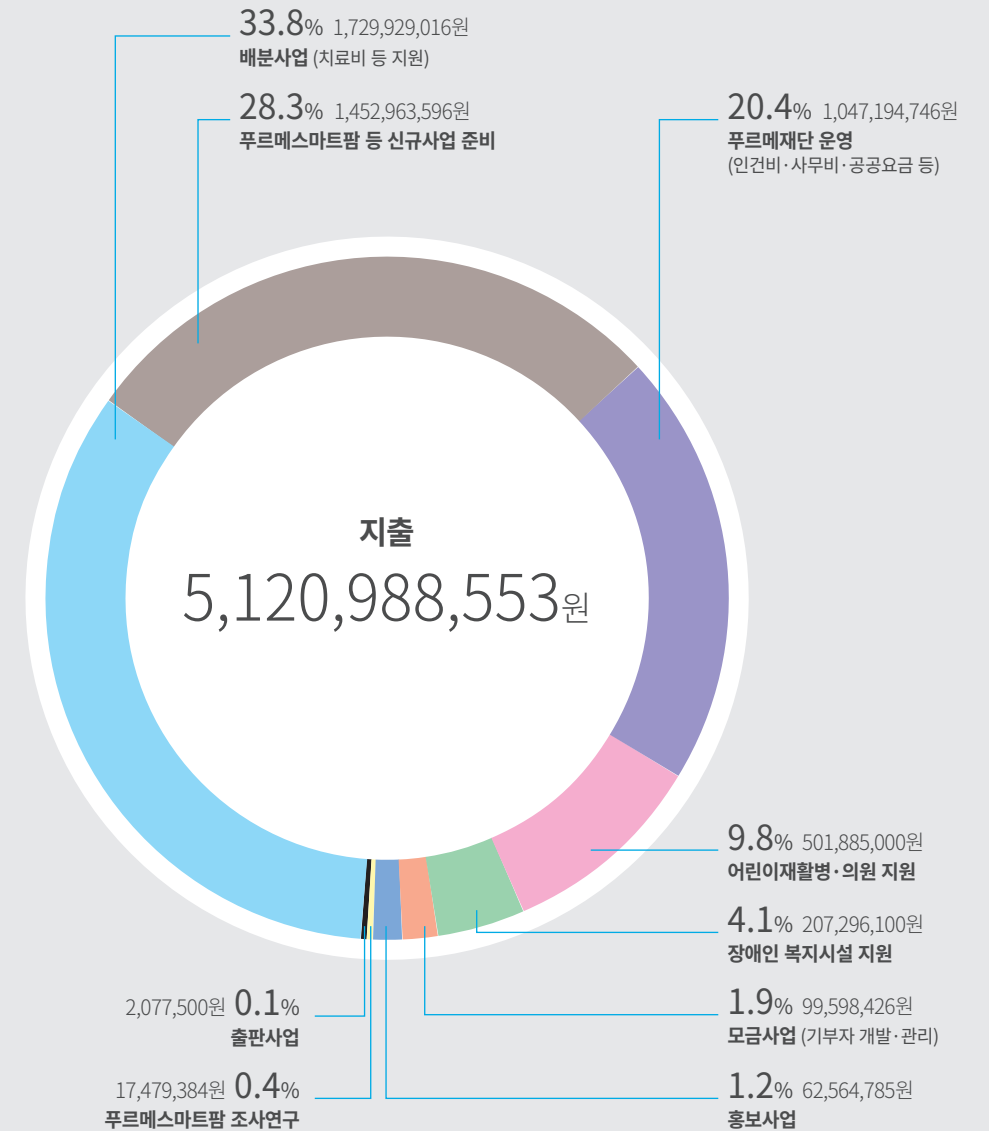
배우 유연석·손호준 '커피프렌즈' 프로젝트 모금액에 추가 기부를 통해 3,260만 원 기부

결산

2018년,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랑과 정성이 모였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엄격한 외부회계감사와 내부감사를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 보내주신 기부금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당해년도에 미사용된 금액은 차년도로 이월되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2018년 자세히

모금 및 배분사업	16
의료사업	20
장애어린이 이야기	26
자립사업	27
장애청년 이야기	34
사회통합사업	35
장애인 가족 이야기	39

모금 및 배분사업

한 해 동안 9,272명의 시민과 158개 기업이 나눔으로 함께해준 덕분에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사업, 자립사업, 사회통합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20개 기업과 손잡고 약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모금액



4,968,503,796원

배분사업 지원자



5,047명

푸르메재단은 기부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년 정기이사회, 외부 회계법인 감사, 내부감사를 통해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평가받고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모금액 사용내역과 사업결과를 보고합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의 90% 이상을 지정하신 사업에, 10% 이하를 기부금품 모집·관리·운영에 사용합니다.

모금성과

시민과 기업이 모아 준 나눔의 손길로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가족의 삶,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했고, 두 돌을 맞은 '기적의 병원' 푸르메재단 벡스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첨단 IT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일터인 푸르메스마트팜 건립을 준비했습니다.

배분성과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을 함께 살피는 푸르메재단의 지원 방향에 공감한 국내외 기업들과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 교육, 여행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비장애형제·자매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든든한 결이 되어주었습니다.

지원과정

푸르메재단은 의료진, 사회복지 전문가, 학계 교수, 장애인 당사자, 기업사회공헌 관계자로 구성된 배분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별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장애유형·등급·소득에 관한 기초자료보다는 장애인 가족의 치료·교육계획, 연계과정, 향후계획 등 정성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지원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각도로 살펴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원기업

현대모비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볼보자동차코리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PC그룹, 효성그룹, 카카오, 하나금융나눔재단, 코비에셋, 쇼핑엔티, 마이크로소프트, KB국민은행, 힐서코리아, LG전자, 보령중보재단, 예감, 도모컴퍼니

기부자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야기

“어서와~ 이런 기부는 처음이지?” Donation369 캠페인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조금씩 천천히 ‘기부근육’을 키워가는 소액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매월 3천 원, 내년엔 6천 원, 다음 해엔 9천 원.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 1만 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인3종대회와 극한의 사막 마라톤에 도전해온 김채울 씨, 매일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지선 홍보대사가 많은 참여를 이끌어 어린이 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나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해피빈 굿액션

가수 에이핑크의 진심과 발달장애 청년들의 재능이 만났습니다. 에이핑크 멤버들은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발달장애 청년 창작자들이 직접 그린 독창적인 그림을 에코백과 파우치에 입혀 특별한 굿즈로 제작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에 뜨겁게 응답한 팬들이 굿즈를 구매해 수익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예술, 팬덤, 나눔의 삼박자를 갖춘 활동에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날개 단 착한가게들” 푸르메천사

식당, 학원, 병원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장애인어린아와 장애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기불황에도 우리 동네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천으로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종로떡방, 커핀그루나루 상암GS점 등 마포구 상암동 어린이재활병원 인근 가게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날갯짓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큰 손” 더미라클스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고액기부자들이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산택 지열해운 대표, 배문찬 이피코리아(주) 대표,故윤병철 하나은행 초대 회장과 막내딸 윤혜준 포버스디자인 대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치료 봉사에 참여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어린아와 가족에게 전한 희망

꼭 필요한 치료

장애어린아와 청소년이 제때 치료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와 의료비를, 성인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치과치료와 이동진료를 지원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어린이에게도 수술비, 약제비, 치료기구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재활치료비	의료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치과치료비·이동진료
242명	11명	33명	384명



넓은 세상을 누릴 자유

장애어린아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 자율적인 생활을 돕는 이동보조기기·자세유지기기·전동키트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구, 발과 다리의 변형을 예방해 올바르게 걷도록 도와주는 정형신발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기구	정형신발
287명	10명

쉽과 재충전의 시간

매일 치료를 위해 쉽 없이 달려온 장애어린아와 가족이 잠시 휴식을 갖도록 가족여행과 문화공연을, 양육 부담을 겪는 부모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장애형제·자매의 마음을 보듬는 심리치료와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식개선도서 <학교잖아요?>를 배포했습니다. 장애어린아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을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비장애형제·자매 심리치료·교육비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부모 상담·심리 치료비	장애어린아 특기적성 교육비	가족여행	문화공연	장애인가정 생필품	장애인식개선 도서
97명	61명	26명	33명	275명	480명	108명	3,000명

의료사업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이 제때 알맞은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재활치료를, 장애인이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치과치료를, 장애가 있어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제공했습니다.

재활치료



281,729명

치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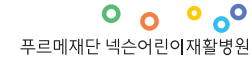
9,425명

보조기기



96,840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의 나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장애어린이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신체 근력과 기능을 강화해주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어린이

2018년 성과

장애어린이에게 긴밀한 협진을 통해 물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로봇치료 등 통합 재활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른둥이 조기중재 집중치료, 학령기 장애어린이 방학집중운동, 영유아 언어발달 촉진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등 특화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첨단 장비를 갖춘 전신마취, 현미경 근관치료, 레이저 치료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이동진료를 활성화했습니다.

이용인원
260,207명

재활의학과
213,882명

정신건강의학과
31,203명

소아청소년과
9,043명

치과
6,079명

푸르메재활센터

장애어린이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푸르메재활의원과 구강질환을 호소하는 장애인에게 전문 치과치료로 힘이 되는 푸르메치과의원을 운영합니다.



장애인의 구강 상태를 살펴 치료하고 있는 치과 의료진

2018년 성과

장애어린이의 전인적 재활을 목표로 물리·작업·감각·언어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는 보호자들에게 원예치료, 창작활동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임플란트, 보철치료 등 치과치료와 장애인 스스로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길러 치아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종로아이존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어린이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상담치료 서비스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미술치료에 참여한 발달장애어린이

2018년 성과

발달장애어린이에게 신체와 인지 등 모든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 또래 친구와 함께 감정조절과 대화방법 등을 습득하는 집단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발달장애어린이에 대한 근거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용인원
23,274명

재활치료
19,928명

치과치료
3,346명

이용인원
9,1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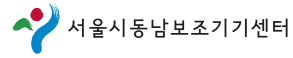
재활치료
7,673명

가족 지원
815명

교육·연계
516명

행사·연구
182명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동·의사소통·학습 등 생애주기와 환경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해 최대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2018년 성과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장애상태를 상담 및 평가해 꼭 맞는 보조기기를 임대하고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작, 정보제공, 소독세척 등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장애인 거주 공간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했고, 목욕·편의시설·컴퓨터 접근 등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를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8년 개소한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와 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용인원
92,5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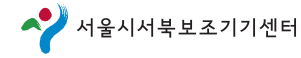
보조기기 임대
88,697명

제작·개조·수리
3,346명

소독·세척
201명

무상지원
309명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동·IT접근·착석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유로운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휠체어와 유모차 등 이동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2018년 성과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열고 보조공학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조공학사와 치료사로 구성된 직원들이 심층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능과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양재·목재·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했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알려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인원
4,287명

보조기기 임대
4,160명

제작·개조·수리
72명

소독·세척
55명

채하나 어린이 · 박은지 어머니
 희망을 품고
 조금씩 천천히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가진 6살 하나.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이 증후군으로 신체·언어·인지 등 전반적인 발달이 더뎠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해내기 버거웠습니다. 그런 하나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걸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엄마 박은지 씨는 연신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라고 말합니다.



감각통합치료 시간에 그네를 타고 있는 하나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재활치료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9시 30분 언어치료에 맞춰 가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치료사 선생님이 건넌 블록을 잡아 통 안에 넣습니다. 스티커를 떼어 붙이거나 선생님이 흔든 악기를 손을 뻗어 잡는 훈련도 곧잘 해냅니다. 치료사가 “이거 잡아볼까?”라고 하자 말이 트이지 않아 의성어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을 키워주는 감각통합치료 시간. 하나가 그네 위에 앉더니 줄을 양손으로 꼭 잡고 온 몸을 맡겨 탑니다. 두 다리가 휘어 똑바로 서기 힘든 하나의 ‘도전과제’는 그네를 서서 타는 것. 선생님이 하나를 들어 올려 그네에 세워보지만 금방 주저앉고 맙니다. 두 발로 온전히 서기 위해 배의 힘을 길러야 하는 상황. 그래도 거울에 비친 그네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운지 활짝 웃어 보입니다.

지금보다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2015년 11월 2일, 하나가 첫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엄마는 잊지 못합니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하나는 이제 몸을 뒤집고 눈을 마주치는 등 희망을 싹틔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앉거나 기어 다니는 것은 물론 앞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거나 눈을 크게 떠보려 노력합니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못했다가 지금

은 열 번 중 두세 번은 돌아봐요. 자신의 이름을 인식하고 반응하게 됐어요. 자신의 몸을 활용할 줄 알게 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려는 욕구도 생겼어요.” 서툴지만 힘껏 “엄마”, “맘마”라는 웅얼이도 할 수 있습니다. 3년째 카카오의 지원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은 하루하루가 쌓여 또래 친구들보다는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다는 믿음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치료뿐만 아니라 청력이 좋지 않은 하나에게 꼭 필요한 보청기며 자세교정의자, 휠체어 구입으로 매달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활치료비 지원은 한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여행이나 보조기기처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재활치료를 하나의 부모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울고 웃고 장난치는 하나의 모습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치료를 다니게 됩니다.” 하루 8~10개의 힘든 치료를 잘 견뎌주는 아이가 대견하다는 엄마. 아주 더디더라도 하나가 언젠가 혼자서 걷고 말하게 될 날을 꿈꿔봅니다.

글 ·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자립사업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홀로 서도록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조력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396,740명

일자리



101,823명

지역네트워크



212,218명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사례관리, 직업 및 가족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에 힘써 온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한 '가족놀이한마당'

2018년 성과

푸르메재단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 장애인과 가족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생활 환경을 넓혀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자립생활주택네트워크 사업,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어울려 살아가도록 돕는 시민옹호활동가 양성,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장애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통합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용인원	직업 지원	교육·치료 지원	가족 지원	지역 연계
422,237명	42,619명	258,312명	30,831명	90,475명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이 잠재능력과 역량을 발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권익옹호활동가

2018년 성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 90명을 권익옹호활동가로 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옹호자로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을 주민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11개 복지관으로 사업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장애·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이끌었습니다.

이용인원	직업 지원	교육·치료 지원	가족 지원	지역 연계
190,633명	11,402명	50,949명	17,631명	110,651명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문화예술, 권익옹호, 자립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해 경제주체로서 품위 있는 양질의 노동을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식개선 활동으로서 난타를 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난타팀 '소,통'



관객들에게 연극 공연 '사랑이 뭐야'를 선보인 발달장애인들

2018년 성과

장애인의 역량을 키워 사회참여와 자립을 도왔습니다. 하루 평균 406명이 교육, 훈련, 여가 등 286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고, 문화예술·생활체육을 향유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난타 공연은 장애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고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8년 성과

발달장애인의 디자인 작업을 활용한 아트상품 브랜드 '아텐토(ART'NTTO)'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400% 이상 성장했고 장애인 임금도 20% 인상했습니다. 대기업·지자체·문화재단과의 협업은 창작자의 재능과 끼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무로 장애인식개선 전문가 '연극극단 네모와 세모'를 준비했습니다. 관람객 700명에게 찾아가는 치유공연을 선보여 '아트커뮤니케이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용인원	직업 지원	교육·치료 지원	가족 지원	지역 연계
58,144명	20,712명	18,031명	8,309명	11,092명

이용인원	직업 지원	교육 지원
10,027명	4,249명	5,778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한 작업환경 안에서 직업적 능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매일 50여 종의 다양한 빵과 쿠키를 생산하는 장애인 직원들

2018년 성과

제과제빵부에서 생산한 베이커리 브랜드 '파니스'의 매출액을 증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통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식품 영양성분 분석과 홍보물 리뉴얼을 완료했습니다. 제과제빵과 임가공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중 스누젤레마당 활동, 장거리 여행을 신설해 장애인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청년이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해나가는 일터입니다. 푸르메재단과 SPC그룹, 서울시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5회 행복한베이커리&카페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참가한 직원들

2018년 성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8번째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2014년 시작되어 5회째를 맞은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나날이 발전하는 직원들의 실력에 맞춰 기존의 카푸치노 제작에서 라떼아트 경연으로 난이도를 높여 진행했습니다. 스킬부문 우승자는 커피잔 위에 멋진 그림 실력을 뽐낸 이세민 바리스타. 창작음료부문 우승자인 김운우 바리스타가 고구마치즈케이크를 음료로 형상화한 '치즈구마잉~'은 신메뉴로 출시됩니다.

이용인원
25,590명

직업 지원
18,691명

교육 지원
6,899명

직업 지원
4,150명

매장 운영
8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나현기 님

“세계 제일의 빵을 만들 거예요!”

생크림빵, 마들렌, 호두파이, 아몬드쿠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빵들의 출생지는?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한 재료로 갓 구워내는 빵과 쿠키들. 유정란, 무염버터, 비정제천연당, 막걸리를 사용한 천연발효 반죽으로 차별화되었는데도 가격은 착합니다. 모든 제품은 당일 생산·당일 판매됩니다.



직접 만든 빵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는 나현기 님

건강한 재료로 갓 구운 맛있는 빵

1985년 보호작업훈련 과정을 신설하며 시작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사회에 적응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제과제빵·단순조립 작업장을 운영하며, 주로 제과제빵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50여 종의 제품을 ‘파니스’ 카페와 전화 주문으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인근 관공서·학교·종교단체에서 대량 주문할 때가 많답니다.

보호작업장의 하루는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빵을 만날 수 있는 파니스 내부를 장애인 서너 명이 쓸고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등 깨끗이 청소합니다. 바닥의 결을 따라 비질을 하고 빵을 알맞은 위치에 진열하는 일 또한 반복 훈련과 교육으로 가능해졌습니다.

12년 경력의 베테랑

구수한 빵 내음이 가득한 2층 작업장에서 다운중후군 나현기 님은 전문 제빵사가 계량·반죽해 숙성시킨 반죽을 이어받아 분할·성형 작업을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길쭉하게 밀어 틀에 감싸니 소라 모양으로 변신. 한판에 6개씩 가지런히 올립니다. 소시지빵을 만드는 손놀림도 익숙한 듯 재빠릅니다. 오븐에서 부저가

울리자 노릇하게 구워진 마들렌을 건조실로 옮겨 식히고 포장합니다. 근로장애인들에게는 전 과정이 어렵지만, 한 가지 또는 네다섯 가지의 맡은 역할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비는 카페로 완성된 제품을 운반하던 나현기 님이 “빵 만들 때 기분이 좋아요. 급했던 성격도 조금은 느긋해졌어요. 세계에서 제일가는 빵을 만들 거예요”라고 웃습니다. 만두제조·박스운반·환경미화 등 여러 직무를 전전하다 2007년부터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나현기 님은 일손을 돕는 봉사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줄 만큼 베테랑입니다.

천천히 이뤄가는 특별한 꿈

김희정 보호작업장 원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일과를 보람차게 마무리하는 장애인들 모습에 뿌듯해요. 장애인, 봉사자, 종사자의 삼박자를 잘 갖춘 덕분이죠.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복지를 함께 지원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제빵사가 되겠다는 나현기 님의 소중한 꿈도 매력 넘치는 특별한 빵들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글·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사회통합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체육활동과 책을 읽으며 문화를 체험하는 독서활동을 진행했고, 장애를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도록 동화책을 발간했습니다.

체육활동



82,791명

독서활동



44,872명

출간 누적 도서



23권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수중재활, 특수체육, 통합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체육시설입니다.



신체 기능과 사회성 향상이 목표인 장애인수영 프로그램 이용자들

2018년 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재활체육과 통합체육·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발달장애인 수영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자존감을 키웠고, 지역주민들은 수영대회 보조뿐만 아니라 베틀시장, 장애이해 퀴즈 맞추기 등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교실, 성인청소년 특수체육, 모자수중운동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용인원
82,791명

재활체육
19,550명

통합체육
63,241명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책을 읽고 소통하며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도서관입니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놀이하는 '아름다름 도서관소풍'에 참여한 어린이들

2018년 성과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통합교육의 장으로서 어린이들에게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경험을 쌓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양성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다같이 읽은 뒤 몸을 움직이며 뛰어 놀고 여럿이 협동해서 작품을 만드는 책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환자의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와 양육 관련 전문도서를 늘렸고, 지역주민에게 장애인 대체도서를 소개했습니다.

이용인원
44,872명

도서 열람
40,317명

문화 프로그램
4,555명

장애인식개선 도서 출판

비장애어린이에게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알려주고, 장애어린이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도서를 출간합니다.



출판사와 손잡고 출간한 장애인식개선 도서

2018년 성과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동네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과정을 그려 장애학생 교육 권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동화책 <학교장아요?>을 출간했습니다. 이로써 2005년부터 출간한 누적 도서가 23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도서를 협력해 출간하고 있는 부키, 뜨인돌, 학지사, 한울림, 사회평론, 마음이음 출판사들은 작가의 인세와 출판 수익금 일부를 장애어린이를 위해 기부해주었습니다.

출간 누적 도서	인세 기부
23권	7,536,895원

장애인 가족 이야기

조승우 군 · 문혜경 어머니

비장애 형제의 가려진 시간



비장애 형제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받은 승우와 엄마 문혜경 님

장애인을 형제로 둔 ‘비장애 형제.’ 한 가정 안에서 장애형제와 함께 커가는 비장애 형제자매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곤 합니다. 장애형제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를 지켜보며, 장애형제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동안 말하지 못한 고민을 쌓아둔 채 남모를 소외감을 겪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형과 동생 사이에서

올해 18살, 고3이 된 승우는 어려서부터 혼자인 삶에 익숙합니다. 발달장애로 의사표현이 서툰 2살 터울의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장애인 보호시설을 다니고, 자폐성 장애로 돌발행동이 잦은 5살 어린 동생은 방과 후 주간보호센터에 갑니다. 엄마 문혜경 님은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의 치료에 전념하느라 승우에게 늘 미안합니다.

승우는 초등학교 때 한창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동생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한번은 길 가는 동생을 놀려대는 친구와 싸웠고,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애형제와 갈등이 생기면 ‘참는 역할’은 늘 승우의 몫. 엄마가 “형이랑 동생이 아프니까 네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고 했었죠. 감정을 내색하지 않던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라고 하자 승우는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생애 첫 백두산 천지 오르며 한 걸음 성장

맞벌이 부부로 아이 셋을 양육하려면 포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승우가 학업에 매진하기를 엄마는 바랍니다. 다행히 푸르메재단과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도움으로 1년간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어학원을 열심히 다니더니 성적이 올랐으며 씩 웃는 승우. “학원 다니면서 알게된 게 많아졌어요. 문법과 시를 배운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덜었다는 엄마. “제일 취약했던 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영어와 수학학원 그 이상으로는

저희 형편에 부담이 됐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였죠.”

승우는 교육비를 지원받은 중·고등학생 친구들,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백두산에도 다녀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천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벅찬 광경이어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3박4일 내내 ‘만형’으로서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며 활동한 최우수 참가자로도 뽑혔습니다. 힘든 내색을 안 하면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는 승우가 엄마는 대견할 따름입니다. “가족들과 외식이 나 여행은 엄두를 낼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백두산에 다녀오더니 마음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낼 준비

승우의 장애희망은 항공정비사.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대학은 항공기계과로 진학하고 싶어요.” 장애형제에 대한 부담을 남은 자식에게 떠안기고 싶지 않다는 엄마는 승우가 형제들과 부대끼며 사느라 집중하지 못했을 자신의 삶을 살아내길 기대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며 즐겁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성인이 되면 독립하면 좋겠어요. 큰애와 막내는 부모인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야죠.” 시간이 좀 더 흘러 각자의 속도와 방식대로 삶의 모양을 만들어갈 아이들의 모습을 엄마는 그려봅니다.

글·사진 정담반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나눔으로 함께

강선우 기부자	42
윤혜준 기부자	43
이민종 자원봉사자	44
기적을 만드는 기업	45

매일, 어른의 책임을 새기다



택배 한 건당 100원씩을 모아 매일 기부하는 강선우 님

매일 천원 남짓한 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르메재단 입금 내역에는 같은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 기부로 지어진 어린이재활병원의 장애어린이들을 삼시세끼 밥을 먹듯 매일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택배기사 강선우 님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첫 배송 날 ‘기부 결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담당하는 강선우 님은 처음 병원에 배송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어진 병원 안에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병원에 매일같이 오는 만큼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택배 한 건당 100원씩 기부하기로 다짐했어요.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워낙 배송량이 많아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면서도 택배 건당 기부금 입금만큼은 빼놓지 않습니다. 편리한 자동이체 대신 무통장입금을 선택한 이유는 ‘병원을 돕자’고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나태해져서 장애어린이들이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우선순위에 밀리니까요.” 자신의 기부금이 병원 의료비며 의료진 인건비며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게 없답니다. “기부안내서에 기부금의 90% 이상이 제가 지정한 사업에 쓰인다는 내용을 보고 안심했어요.”

헌혈 · 아동결연 · 철인대회... 꾸준한 나눔

몇 년 전, 철인들의 참가비 전액이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되는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에 두 번이나 출전했습니다. “은총이를 보트, 휠체어, 트레일러에 태워 전력 질주하던 은총아빠 박지훈 씨를 보면서 깊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대학생 때는 헌혈 30회를 달성해 은장훈장을 받았고 해외 결연아동도 후원하

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일 거라 믿기에 전 직장을 관두고서도 정기기부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계획을 짤 때 기부금은 항상 1순위예요. 기부를 통해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기부를 계속 하기 위해 열심히 살게 됩니다. 택배 일이 정상계도에 오르면 좀 더 증액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 희망을 키우기 위한 책임

강선우 님은 어린이들에게 선택권이 많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꿈이 많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면 단 한 가지도 말하기 어려워요. 무엇을 하든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장애어린이들이 치료 받으러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집 근처 병원에서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 미래에 고액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칩니다. “이 시대의 책임은 어른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게도 어린 세대에 대한 책임이 생겨가고 있어요. 기부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은 점’과 같다는 강선우 님. 그 점이 커져 새로운 길이 되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희망을 배달합니다.

글 ·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아버지가 남긴 따뜻한 유산



故윤병철 어린이재활병원 초대 이사장과 아버지를 따라 나눔을 실천한 윤혜준 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 강했어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한 윤혜준 님이 부끄러운 듯 내놓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故윤병철 하나은행 초대 회장이자 어린이재활병원 초대 이사장의 막내딸. 2016년 타계 전에 병원 수치료실 건립비로 1억 원을 기부한 아버지를 따라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생전에 병원을 다녀오시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친근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푸르메재단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왔고요. 기부금을 전달하러 병원에 직접 가보니까 호흡기에 의지하는 아이가 저를 보고 밝게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구나, 아버지와 아이들이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었구나 싶어서 몽클했습니다.”

디자인 회사 대표인 윤혜준 님은 한부모, 조손 가정의 어린이들을 도울 정도로 나눔에 관심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했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도울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받아 온 윤혜준 님에게 나눔은 ‘작게라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나눔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가져올 ‘변화’

그렇게 자란 윤혜준 님은 자기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선의가 돌고 돌면서 더 큰 선의를 낳는 선순환의 사회입니다. “아버지는 남이 잘하는 일에서 도움을 받고, 네가 잘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 사회는 아름답게 운행할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눔과 도움이 선순환한다면, ‘좋은 일’의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 사회구성원 모두를 ‘연결’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치료실은 병원의 ‘마지막 퍼즐’ 같은 의미입니다. 수치료가 재활에 효과가 워낙 좋은 터라 최초 구상 단계에서 포함되었다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걱정에 끝내 포기한 공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그 유지를 받은 딸의 나눔이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장애어린이들이 물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길 바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실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요.”

당신과 나, 우리가 희망

윤혜준 님은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듯, 돈의 주인도 개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돈이 나한테 있는 동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나눔이란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희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돈을 왜 버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나누기 위해서’라는 말처럼 좋은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오래전 푸르메재단에서 받은 접시 뒷면의 ‘당신이 희망입니다’라는 문구가 잊히지 않이라며 남긴 한 마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희망’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세요.”

글 · 사진 정태영 기획실장

환한 미소를 선물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치과치료 봉사를 해온 이민중 님

“이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나요~” 장애인들의 입 안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동작이 재빠르고 정확합니다. 두 다리를 구부린 채 환자의 귀에 바짝 대고 치료 과정을 천천히 말해줍니다.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푸르메미소원정대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는 이민중 님의 손길에는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된 봉사

치과 경영컨설턴트인 이민중 님은 휴일을 반납하고 미소원정대원으로서 ‘출동’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자신의 차려가 아닌데도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나서기도 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참여해서인지 간혹 푸르메재단 직원으로 오해받을 정도랍니다.

이민중 님이 미소원정대원으로 합류한 건 2012년. 이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치과봉사를 해왔습니다. 충남 아산의 개인병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며 매달 한 번씩 이주노동자를 위한 치료봉사, 서울 영등포역 무료진료소인 요셉의원에서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봉사와 해외 의료봉사까지. 치과 원장을 따라 힘을 보탠 봉사활동이 어느새 자신의 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봉사를 찾다가 알게 된 미소원정대도 그 연장선으로 시작한 셈입니다.

참여할수록 커지는 행복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찾아가는 특성상 이동식 진료 장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비좁은 공간에 퍼놓은 4개의 체어 중 이민중 님은 거동이 불편하고 구강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이 주로 오는 ‘1번 체어’를 담당합니다. 치석 상태에 따라 장비의 세기를 조절해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초기에는 오후 늦게까지 환자를 봤어요.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 거세게 뿌리치는 분들이 많아서 애를 먹었어요. 치료하다가 손을 물리기도 했었죠(웃음).”

한 번 갔던 장애인 시설은 매년 다시 방문해 검진하고 치료합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치석이 거의 없어진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유입니다. “저를 알아봐주고 반가워할 때도 기쁘지만, 제가 그 분들의 건강한 치아 상태를 알아볼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미소원정대를 권하는 이유

봉사활동의 즐거움을 혼자만 알기 아깝다며 더 많은 치과 위생사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치과 방사선학과 임상과목을 강의하면서부터는 현업 종사자인 수강생들에게 틈 날 때마다 “미소원정대에 함께 가자”고 권유합니다. 장애인의 치료 현실을 잘 알기에 미소원정대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맞죠!” 자주 갈 순 없더라도 정기 검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해야 하는 회사 일보다 두 배 이상의 힘을 쏟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일까요?” 치료를 받은 장애인의 환한 미소에 덩달아 행복해진다는 이민중 님은 벌써 다음 번 미소원정대 일정을 기다립니다.

글·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볼보자동차코리아 남윤지 PR&CSR 과장

“배려의 가치를 퍼뜨립니다”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장애어린이 보조기구와 재활치료비 지원, 임직원 봉사를 함께합니다. 더 많은 장애어린이에게 보조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생활과 재활치료의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2018년 지원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남윤지 과장은 “배려와 돌봄을 의미하는 ‘옴단케(Omtanke)’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희망을 전한 장애어린이는 194명.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들은 임직원들에게도 알려지며 “차를 열심히 판매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공유합니다. 임직원들은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장애인들의 ‘친구’가 돼 물건포장 작업을 돕고 생일파티를 열어 축하했습니다. “금세 마음을 열어준 장애인들과 정들었다며 또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장애인을 사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이해했던 거죠.”

앞으로 기업의 성장 규모만큼 더 많은 장애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자동차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세웠어요. 장애어린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공헌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윤지 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손잡고 만들 변화가 기대됩니다.



(주)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 주병교 총괄본부장

“즐거운 나눔을 이끽니다”

스위스 키보드 브랜드 공식수입사인 ㈜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은 올해로 5년째 아이·어른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행사를 통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부터 운영까지 늘 응원합니다. 주병교 총괄본부장은 “주 고객층인 어린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장애인들에게 환원하는 게 당연합니다”라며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기업의 수익이 제대로 쓰일지 기부 투명성을 수차례 확인하며 찾은 곳이 푸르메재단이었습니다.

(주)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은 매년 키보드를 타며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는 ‘마이크로키보드 패밀리 킥앤런’을 열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합니다. “온 가족이 놀며 소통하는 장이자 참가비로 생기는 변화를 알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죠.” 휠체어 체험존을 마련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휠체어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장애인 친구가 겪을 어려움을 설명해줘요. 단순한 모험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 일원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선 홍보대사의 디자인을 입힌 ‘선 리미티드 에디션 스쿠터’ 판매수익금도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시작하면서 회사도 발전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기부한 액수만 1억 1,270여만 원. “사람은 한결같아야 하듯, 항상 같은 마음이어야 기부도 이어갈 수 있어요. 소중한 병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함께할게요!” 올해 패밀리 킥앤런 행사의 예상 인원은 1,500명. 즐거운 나눔이 키보드에 실려 올 것입니다.

글·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푸르메 포커스

전문가 대담 48
희망의 스마트팜 53

푸르메재단 2018년 성과와 2019년 방향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푸르메의 미래

참석자 박태규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최미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실장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이민희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센터장
 진행자 박금희 푸르메재단 사무국장



박금희 푸르메재단의 2018년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푸르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를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8년 어떠셨나요?

최미영 푸르메가 강조하는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큰 틀에서 장애 여부를 떠나 지역 사회 안에서 관계를 확장하고 폭넓은 지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논의들을 지난해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진행했어요. 시민들도 함께 오셔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행사에 참여하신 한 교수께서 “시민의 힘을 모아 만든 재단이 여전히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좋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몰랐던 푸르메의 강점과 DNA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푸르메와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좀 더 깊이 있는 장애인 자립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였어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국가 보조에 의존하기보다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도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으는 건 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민희 저는 장애인과 함께 연극공연을 해낸 일이 기억에 남아요. 센터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 모두 정말 오래 준비했는데, 처음의 우려를 딛고 대학로에서까지 총 5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연극 자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

“어린이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재활의 역할을 꾸준히 지속해주는 것입니다.”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나 싶어 마지막 날에는 몽클했어요. 단순 작업을 통한 재활에만 만족했다면 그냥 문혔을 장애인들의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서 보람도 있었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도 다지게 되었죠. 올해에는 장애인들이 공연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의 강

사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해요. 병원이나 기업들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때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에게도 사랑할 권리,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걸 연극으로 보여주면서 인식개선활동으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홍지연 저희 어린이재활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며 우수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인정받았어요. 201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낮병동도 60명에서 90명으로 늘렸고, 환아들의 치료 기간도 적정히 조율하며 대기자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부모 대상의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재활의 역할을 지속해주는 것인데요. 언어치료만 봐도 일주일에 하루 보는 치료사보다 부모님이 꾸준히 아이와 대화를 통해 언어치료를 반복하는 게 초기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총 2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성과가 정말 좋았어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는 방학 집중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치료의 양이 줄게 되면서 기능이 후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못 오더라도 일상적 운동과 훈련을 통해 ‘내 몸은 특별히 더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



고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몸을 만들어서 학기 중 퇴행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목표로 시작했어요. 문제는 의료수가 때문에 재활치료를 30분밖에 못 하는 거였는데 고민 끝에 손해를 보더라도 집중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90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뇌성마비로 거의



“ 장애인 복지 분야는
합리를 따지는 검사의 눈보다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의 마음으로 바라봐주세요. ”

최미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실장

역인지 고민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역할과 부모님의 역할이 다르듯, 직업재활센터 역시 재활과 관련한 부분은 교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일상생활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육해주셔야 하는데 선을 넘는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하면 도와드리고자 하지만 센터의 한계가 있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최미영 이용자 입장에서 스스로 공평과 공정의 과정을 이해하시도록 꾸준히 조율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모님들께 매일매일 생활기록지와 활동 영상을 보여 주면서 이용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함께 고민하고 부모님 스스로 적정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과 현장 활동가들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는 공평과 공정한 프로세스를 감시하고 지키는 검사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철저히 장애인과 부모님의 입장을 헤아리고 보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애인들은 스스로 역할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잖아요. 장애인 복지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금희 사회 전반에서는 검사 역할을 맡더라도 장애인에게는 변호사의 역할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올해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인가요?

홍지연 지난해 이른둥이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전부 부모교육으로 전환해서 진행했어요. 올해에도 가정에서 꾸준히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까지 부모교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이와 놀아줄 때, 말을 가르쳐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부모교육의 일관된 원칙을 훈련시켜 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못 견뎠던 학생도 이 집중치료 프로그램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의 꿈이 걷는 거에서 등산을 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정말 보람 있는 사례였습니다.

박태규 2005년에 만들어진 푸르메의 정신이 2030년에도 사회적으로 유용할 것인지를 계속 질문해야 하고 매년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과 미션은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이 찾아나가야 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하며, 이 방향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 필요합니다.

박금희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홍지연 어린이재활병원은 시작부터가 다르다 보니 보호자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은 안 돼도 푸르메에서는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데 막상 그게 안 되면 섭섭해 하세요. 푸르메에서도 대기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시기도 하고, 적정선을 넘는 치료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다운증후군이라도 장애 정도와 행동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애는 다르게 하느냐며 화를 내시기도 해요.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적정 치료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민희 저도 종종 부모님과 장애인 훈련생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교사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부모님의 영

“ 직업적 자립 능력을 키워내는 일에 더해
부모님과 이용자의 노화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

이민희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센터장

또 어린이 재활치료와 학령기 교육과의 연계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전체 가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가족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애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 보니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부모님 본인의 정신적 어려움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두분의 정신과 전문가들이 부모님 중심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료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미영 저희 복지관은 우리가 가진 지적·물적 자원을 시민들과 더 많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등록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누구나 사시사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문을 열어두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합니다.

가끔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장의 요구에 의해 찾아요. 지난해 수십 년간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했어요. 도무지 이분들이 집밖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복지사들의 고민을 듣고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많이 고민했어요.



몇 번 방문한 뒤 일일이 손편지로 복지관으로 오십사 초대장을 보냈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분들이 초대장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대요. 항상 도움 받는 입장에서 당당히 초대장을 받은 경험이 정말 좋았던 거죠. 경험 많은 복지사들이 개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씩 근본적인 문제들이 보였어요. 평생 지적장애인 줄 알았는데 능력이 상당히 높은 자폐성 장애라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휠체어에 집착했던 분은 정밀진단을 해보니 척추가 무너져서 바로 정형외과로 조치해서 나아지셨죠. 서울시에 사례연구 발표를 통해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장애인이 탈시설로 자립하기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규 흔히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효율성을 논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그 효율성이 양적인 성과가 아니라 질적인 향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푸르메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유형 등을 평가해서 복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몇 가지의 유형을 찾아내고, 그 새로운 시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경우 그 사례를 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효율성은
양적 성과가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태규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최미영 앞장서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제도적 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실천해보고 그 사례들의 장단점을 푸르메 안에서 공유하고 발전시켜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복지관에는 선진국 수준의 재활시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수중재활 대기자가 700명이 넘는데 2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제안했죠. 서울시에 공공체육시설이 많으니 지역 내 수영장의 한 레인만 수중재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주면 재활치료를 훈련해서 보내겠다고요. 수중재활이 지금은 장애인 중심이지만 노령화 사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관절이 약해지거나 수술을 받고 나면 수중재활이 중요하거든요. 누군가는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로 진입하는 사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시설들이 개방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막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복지관과 병원,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 조성된 수중재활센터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에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 2019년, 푸르메가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제안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

박금희 푸르메재단 사무국장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고 제안하는 것도 2019년 푸르메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 저희는 개인의 자립적 능력을 키워내는 목표에 더해 올해는 건강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와 이용자의 노화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시도하려고 해요. 집에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혼자 길은 잘 건너는지, 약은 혼자 잘 챙겨먹는지 부모님들께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센터에만 의존하면 재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최미영 올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보통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거부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어렵다면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동행하겠다는 생각이예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이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과 손잡고 말 한 마디로 집안을 제어하는 스마트한 4차혁명 세상을 장애인들에게 열어드리고 싶은 바람도 있고요.

박금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치료와 재활 사례들을 들으니 우리 푸르메가 더 많은 새로운 시도와 제안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학습과 성과에 대한 공유가 이뤄져서 발전하는 푸르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임지영 기획팀장 사진 정담빈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푸르메스마트팜,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80여 종의 토마토를 재배하는 '토마토월드'

어린이재활병원, 그 후의 푸르메재단이 해야 할 일

푸르메재단은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교육을 받으며 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시민과 500여 기업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그 첫걸음이었습니. 그러나 장애어린이들이 잘 치료받고 어른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 다시 소외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 장애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장애어린이의 부모님들은 고된 시간을 견디며 치료와 교육을 마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어린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체장애인이거나 시·청각장애인 등은 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고용기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습니

다. 복지관 프로그램 역시 3년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된 후에도 초조하게 주간보호시설을 전전하거나 좋은 일자리는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녀가 종일 집에서 외딴 처럼 지내기를 원치 않는 부모님들은 안 좋은 조건이라도 시설에서 퇴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버텨야만 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인 까닭은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메재단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된 장애청년들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일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 언젠가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푸르메재단이 가진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이 일함에도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합니다.

농업이 주는 치유의 힘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밭을 가꿉니다. 노인들이 괭이로 판 움푹한 흙 사이로 장애청년들이 작물의 씨앗을 한 알씩 넣으며 따라옵니다. 농장 한 쪽의 가축 사육장에는 병아리들이 둘러싸여 앉아 있는 장애청년이 있습니다. 다가가 가축들에 대해 묻자 발그레한 얼굴로 자신이 키우는 병아리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 청년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은 폐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농장 경영주이자 네덜란드 사회적 농업의 권위자인 하싱크 교수는 “장애청년들과 치매노인들, 이곳의 모든 이용자들이 농업의 치유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며 자연스레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게 시간 보내기용이 아닌 ‘가치 있는 업무’를 주는 일.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농업과 복지를 결합해 치유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결합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일하며 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치유의 효과가 결합될 수 있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가 농업계에서는 ‘치유농업’

으로, 복지계에서는 ‘케어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농업이 주는 심신 안정의 효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시키려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경미 박사는 농업이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장애인은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작물을 수확하며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그동안 장애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작물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작물의 성장에 따라 환경과 작업 방법이 달라져요”라며 장애인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순 반복 작업과의 차이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건강함이 가득한 곳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찾아가는 공간. 푸르메재단은 농업이 주는 치유와 자존감, 자신감 회복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일자리, 푸르메스마트팜

미래 농업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팜은 온실농업에 IoT, AI 기술을 접목해 작물에 필요한 환경을 컴퓨터로 측정하고 통제하는 ‘자동화 농장’입니다. 온습도를 계측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문을 여닫고, 작물의 발육 상태에 따라 양액의 양을 조절해 공급합니다. 기존의 농업 환경과는 상반되는 환경입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후 변화에 노심초사하며 작물을 살펴야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컴퓨터로 제어되는 것이 농업에 있어 정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수많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에 맞춰



장애인과 치매 환자에게 농사 체험과 학습을 제공하는 케어팜 ‘후버 클리인 마리엔달’



첨단 유리온실 ‘베주크 애그리포트’의 자동화 설비

작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스마트팜은 오래된 농부의 감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마토나 딸기, 파프리카, 버섯 등 빅데이터와 시행착오의 경험이 많은 작물들은 놀라울 만큼 최적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제어되는 환경에서 작물에게 꼭 필요한 양분을 제공해 각종 병충해와 자연재해, 기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무농약 고품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사람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푸르메재단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팜이 장애청년들의 멋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팜이라도 심고 따는 일은 사람의 몫입니다. ‘전문적인 작물의 재배는 스마트팜과 농업전문가가 하더라도 심고 따고 보살피는 일은 장애청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 모델로서 스마트팜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 농업의 전문적인 분야는 데이터와 기술로 보완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요소요소애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할 수 있을까? ’

‘ 작물을 기르며 얻는 농업의 치유 효과를 즐기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 ’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며 조언을 듣고, 스마트팜에서 장애청년들과 함께 버섯을 기르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여러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시설을 살펴보고도 하고, 농업의 최첨단국인 네덜란드의 스마트팜과 케어팜을 견학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베주크 애그리포트(Bezeok Agriport)라는 대형 농장은 첨단 온실농업의 표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위 면적당 국내 일반 농가에 비해 두 배 넘는 양의 파프리카가 재배되는데, 9만 평이 넘는 규모의 온실을 관리하는 상주 전문가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농장주의 오랜 노하우와 데이터를 첨단 기술에 접목시켜 파프리카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덕분입니다. 작물을 관리하는 재배 전문가는 컴퓨터를 통해 온실의 환경을 확인하고 작물의 상태에 따라 양액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자동화된 설비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골라내고, 온실을 청소하는 등의 수많은 단순 노무는 100여 명의 파트타임어머들이 합니다.

푸르메재단은 네덜란드처럼 첨단 기술로 작물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단순 업무들에 장애청년들의 노동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높



경기도 여주의 표고버섯 스마트팜에서 버섯을 재배한 장애청년들

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장애청년들의 근무 환경의 개선과 여유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욱 멋진 것입니다. 사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공간에 더해 무농약 고품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 장애인이 일함에도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팜에서는 장애청년 개개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에 따라 일을 따주고 작물을 재배하는 동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CCTV를 감시하며 문제를 발견해내는 정적인 직무를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재배한 작물로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며 그들에게 적합한 일을 주고, 작물을 가공하고 포장하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푸르메스마트팜 건립, 당신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는 푸르메스마트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남양주 소재의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을 수탁 운영하게 되어 장애청년들을 위한 농업 재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장애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앞으로 만들어질 푸르메스마트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수도권 근교의 유희 부지를 활용한 장애청년들의 일자리 모델을 위해 서울시 및 권역별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2020년에는 멋진 푸르메스마트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르메스마트팜이 장애청년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곳으로 자리 잡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제2의 제3의 푸르메스마트팜도 건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장애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기기에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부지의 특성과 인근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딸기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체험농장으로, 또 다른 곳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심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곳에서 일하는 장애청년이 농업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끼며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비장애인과 상생하며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댄 푸르메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지 확보, 스마트팜과 농업에 대한 조사, 장애청년들을 위한 직무분석·개발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청년의 일자리로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은 시민들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이미 푸르메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연예인들과 여러 기업들, 많은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하루에도 몇 통씩 장애청년 부모님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곤 합니다.



장애청년들이 수확한 표고버섯

푸르메스마트팜. 조금씩 그 간절함의 힘을 모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을 헤쳐 나가는 일이 벅차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기부자 분들이 있기에 푸르메재단은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들이 바라는 푸르메재단의 역할을 항상 되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투명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푸르메스마트팜 기부문의 02-6395-7008

글 김해승 기획팀 간사 사진 푸르메재단 DB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비전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

미션

장애인 전인재활 및 사회통합
재활의 선도, 존중과 통합, 미래가치 창출

나눔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나눔과 참여, 투명과 윤리

주요사업

배분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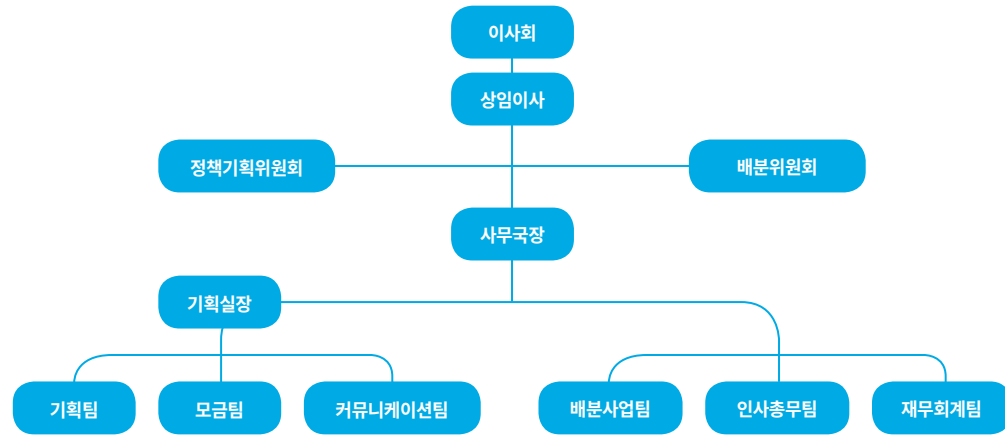
의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사회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조직






이사회 푸르메를 이끌어 갑니다.

<p> 명예이사장 </p>  <p>김성수 우리마을 총장</p>	<p> 이사장 </p>  <p>강지원 변호사</p>	<p> 공동대표 </p>  <p>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p>	<p> 공동대표 </p>  <p>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p>	<p> 상임이사 </p>  <p>백경학 前 CBS, 동아일보 기자</p>		
<p> 이사 </p>  <p>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p>	<p> 이사 </p>  <p>원택 스톱 해인사 백련암 주지</p>	<p> 이사 </p>  <p>이정식 ㈜서울문화사 총괄 사장</p>	<p> 이사 </p>  <p>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p>	<p> 이사 </p>  <p>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p>	<p> 이사 </p>  <p>김윤태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장</p>	<p> 이사 </p>  <p>송재용 前 외환은행 독일법인장</p>
<p> 감사 </p>  <p>문창진 前 보건복지부 차관</p>	<p> 감사 </p>  <p>조인숙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p>	<p> 감사 </p>  <p>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감사 </p>  <p>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감사 </p>  <p>김문규 태울회계법인 이사</p>	<p> 감사 </p>  <p>김선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p>	

홍보대사

푸르메의 가치를 알려 나갑니다.

 <p>엄홍길 산악인</p>	 <p>선 가수</p>	 <p>이지선 작가·교수</p>
 <p>서경덕 홍보 전문가</p>	 <p>이근호 축구선수</p>	 <p>이은미 가수</p>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p>이종수 위원장 한국사회투자 이사장</p> <p>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p> <p>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 <p>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전동건 MBC 시사제작국 국장</p>	<p>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 <p>정재권 前 한겨레 선임기자</p> <p>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p> <p>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p>
--	---

배분위원회

배분사업의 방향에 맞는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p>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센터장</p> <p>곽재복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p> <p>김경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김윤태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장</p> <p>김은영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p> <p>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p> <p>김희정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차장</p> <p>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센터장</p> <p>민여진 스마일재단 국장</p> <p>박대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p> <p>박미혜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p> <p>서경주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前 고문</p> <p>서은주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p> <p>석도준 웰플란트치과 원장</p>	<p>우창윤 서울시의회 시의원</p> <p>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지원센터장</p> <p>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p> <p>이금호 스마일재단 이사</p> <p>이명목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p> <p>이민중 前 경북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p> <p>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팀장</p> <p>이의진 푸르메재활센터 센터장</p> <p>이학준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p> <p>조명민 장애인 부모</p> <p>조준희 세브란스봄치과의원 원장</p> <p>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p>
---	--

푸르메 가족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입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의 나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푸르메재활센터

장애인의 전신적 재활치료와 전문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1~2층
T. 02-6395-7000 H. www.ipurme.org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rehab.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6 H. www.seoulats.or.kr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mpvr.modoo.at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1 H. www.panis.or.kr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청년들이
전문 바리스타의 꿈을 펼쳐가는
희망찬 일터
T. 070-4242-2628



파니스

장애청년들이
제빵사의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일터
T. 02-440-5886



푸르메마트팜 서울농원

장애청년들에게
농업을 통해 심과 자립을
지원하는 일터
T. 031-572-4025

2018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9년 3월 25일

발행처 푸르메재단

발행인 강지원

디자인 (주)포스트디자인보현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3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T. 02-720-7002 H. www.purme.org

 facebook.com/purmefoundation

 blog.naver.com/purmefoundation2005

 instagram.com/purmefoundation

 pf.kakao.com/_xeHVxil

bb

푸르메재단은
기부자 분들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99